



시론 02

건축사진에 대하여

종합 03

사랑에서 _ LH 사태가 던진 과제
법령정보

전남 지역 뉴스 04-05

광양 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전남 고흥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주시, 도시의 미래위한 건물 탄소중립 전략 모색
순창군, 2023 도시재생대학
전라북도건축사회, 어린이 집 그리기, 건축 백일장 대회

광주 지역 뉴스 08-09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동구 경관학교 1기 개강

제2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10-11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작 '서빛마루'
비주거 부문 최우수작 '회색커'
주거 부문 우수작 '제고공일'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요즈음 건축
한 장의 사진 _ 폰트네 수도원의 회랑
한 편의 시 _ 청포도 사랑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9.16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사진에 대하여



이동희 논설위원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donghee@hanmail.net

- 1982-1985 영월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1986-1994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0-2002 충주대-세명대-대원과학대 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05-2023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15-2016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8-2019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위원장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집행부위원장
- 2019-2021 고흥군 청년농촌주택조성사업 총괄계획가
- 2022-2024 대한건축학회 사진연구회 회장
- 2023-2024 한국농촌건축학회 부회장

건축사진은 언제 찍는가? 건축물은 사진을 찍어야 비로소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듯이, 건축물도 쓰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둘 것을 권한다. 음식물은 자칫 온도가 변하거나 동석한 다른 사람이 있어 촬영 시간의 압박을 받지만, 건축물은 적당한 빛만 있으면 비교적 충분한 촬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지만, 사용인의 일상에 방해가 된다거나 정리 정돈이 잘 되어있지 않으면 좋은 사진을 얻기 힘들다.

또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이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아도 좋으나, 전자는 아직 완성되기 전 단계의 시공 기록성이 강하고 후자는 이미 완성 단계를 지나 생활 표현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시공완료와 사용개시 사이의 그 절묘한 시점에서 촬영하는 것이 그럴듯한 건축물 사진을 얻는 방법이다. 특히 설계작품의 결과물로 활용할 요량이면 더욱 그렇다.

건축사진은 어떻게 찍는가? 인물사진을 찍을 적에, 초보는 사람만 보고, 중급은 배경까지를 보고, 고수는 빛까지를 본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과 바탕의 조화를 이해하고 주변의 어둠과 빛의 방향을 고려한 후 촬영해야 멋진 사진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미학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고 촬영하는 일이다.

사람마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 공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을 흔히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할 때, 그 안에 구현된 인간, 공간, 시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건축미학의 본질인 '행태수용, 공간구조, 음영조화' 등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건축이란 '인간과 공간의 관계 맺음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용(變用·變容)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건축미학에는 '사람의 성정, 땅의 형상, 하늘의 변화'가 관여됨을 염두에 두고 촬영해야 예술성이 더욱 짙어진다.

건축사진은 어떻게 나뉘는가? 바로 '쓰는 건축'과 '보는 건축'과 '읽는 건축'에 기인한다. 쓰는 건축은 건축주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공간을 주로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보는 건축은 사용인과 스치는 사람들이 공간과 형태를 미학적으로 감상하는 일이다. 그리고 읽는 건축은 그 건축물 전체와 부분에서 베어져 나오는 역사, 철학, 의미, 상징, 표현 등을 서사적으로 향유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는 내가 건축작품의 완성 수준을 평가할 때 즐겨 사용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쓰는 건축을 위해서는 형학(形學)에 대한 공부, 보는 건축을 위해서는 미학(美學)에 대한 의지가, 읽는 건축을 위해서는 인문학(文史哲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쓰는 건축을 촬영하면 단순한 '기록 사진'에 그치고, 보는 건축을 촬영하면 직접적 '달력사진'에 머물고, 읽는 건축을 촬영하면 승화된 '예술사진'이 된다. 그러므로 건축의 완성 수준이 곧 건축사진의 작품 수준으로 치환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사진가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찍고(肉眼), 생각하며 찍고(腦眼), 마음으로 찍고(心眼), 무심하게 찍고(靈眼)' 사진으로도 구별된다.

건축사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진기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이다. 그리고 촬영된 사진은 정지된 시간이자, 응고된 장면이며, 응축된 정보 덩어리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 유명한 건축가와 그렇지 못한 건축가의 차이는 곧 기록의 차이일 공산이 크다. 근대 이후 훌륭한 건축가 옆에는 대부분 유능한 사진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부동체이므로 건립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때 사진을 통하면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그 건축물 모습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건축은 바로 누군가의 기억이다. 머물던 건축물과 쉽게 이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과거의 자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사진은 추억 속 건축물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물론 영상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사진보다는 훨씬 품이 많이 든다.

건축사진의 촬영비법은 무엇인가? 건축가는 설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진가는 촬영을 통해 건축을 드러낸다. 건축사진을 찍는 것은 사진가의 눈으로 건축을 번역해 내는 작업이며, 건축가가 빛어낸 객관적 실체에 사진가의 주관적 사유를 더해 또 다른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건축사진은 일반적으로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담아낸 것, 건축물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요소나 오브제 등을 삽입한 것, 건축물의 핵심요소를 부각시키거나 독자적으로 재해석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 갈수록 기록성이, 후자로 갈수록 예술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술성 높은 건축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촬영할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形態·空間)을 둘러싼 상황(人文)과 장소(地文)와 시간(天文)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건축사진의 독자성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물이 세상에 빛 내려면 단순한 물리적 덩어리를 넘어선 감동적 이야기거리를 품고 있어야 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술적 복사물을 넘어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어야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그 사진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다른 사진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뷰파인더에서의 눈(點), 화각(線), 화상(面)을 바탕으로,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예리하고 따뜻한 시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과 그림자의 포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해 풀어내는 능력. 그것이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사진가에게 자신도 모르는 건축물 모습을 담아주길 내심 기대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건축사진은 딱딱한 건축을 말랑한 건축으로 만들어 건축문화의 일반화, 대중화, 보편화에 이바지한다.

사랑에서 _ 일백다섯 번째

LH 사태가 던진 과제

LH 관련 악행과 비리는 어디까지일까?

LH의 추잡한 행태가 사회적 이슈로 터져 나온 것은, 2021년에 불거진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사건부터였고, 그에 대한 처벌과 대책은 맹탕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는 '순살 아파트'라는 신 조어를 탄생시킨 부실시공과 전관 몰아주기 행태까지 들쭉날쭉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다만, 여러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거나 검증하지 못할 뿐이다.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악행과 비리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LH와 유사한 공사 또는 공단은 물론이고,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지위와 권한을 휘두르고 있으며, 힘 있는 권력기관일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하다. 갑질은 기본이고, 불법적인 로비와 청탁,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불법행위 눈감아주기,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하고 검은 거래, 은밀한 담합과 조작 등 추잡한 행태도 다양각색이다. 심지어 각종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까지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쥐락펴락하고 있으며, 그에 참여하는 일부 민간인 또는 외부 전문가들까지도 덩달아 온갖 악행과 비리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힘없는 서민이나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오히려 팔시받은 세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뀔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 대부분은 댐질 처방에 불과하고, 하물며 그조차도 대부분 악행과 비리에 가담한 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LH 사태만 보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실효성도 없는 맹탕 대책이나 실천 의지도 없는 졸속 대책들만 거론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의 LH 사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4년제인 건축공학전공과 5년제인 건축학전공으로 나뉘어, 한쪽에서는 건축디자인 분야는 등한시하고 건축공학이나 건축기술에 치중하여 교육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교육하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반쪽짜리 건축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회피와 면피에만 골몰하고 있는 가담자들만 여전히 눈에 띈 뿐이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정보

□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23. 10. 01.까지) / 국토교통부 공고 2023-1004호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 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안 제18조의2제2항)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
- 나. 대피공간 출입문에 60+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

기준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61조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전담기자 김종문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木家三間休(휴식과 느낌을 위한 주택)

최성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89
Tel. 061-394-5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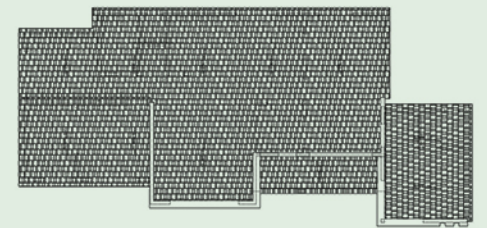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69번지 / 대지면적 : 514.0㎡ / 건축면적 : 134.02㎡ / 연면적 : 134.02㎡ / 건폐율 : 26.07%
용적률 : 26.07%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일반목(목조)구조 / 주요마감 : 스타코플렉스, 세라믹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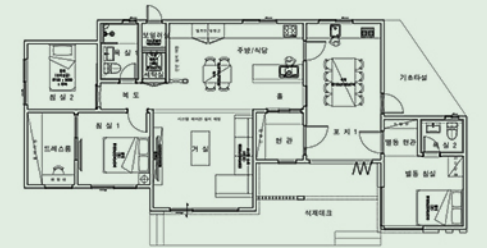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예전의 꿈과 희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으며 휴식과 느낌을 위한 주택으로, 자연 속에 스며들며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 패턴을 추구하고자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넓은 마당과 기존 시골 마을과 조화로우며 강조하고자 단층으로 설계했으며 부모님과의 정을 느끼게끔 동일 공간으로 구성함에 역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디자인 개념으로는 단순하면서도 주변 마을 환경과의 조화로우며 형성됨을 강조하고자 했으며, 평면 개념에서도 부모님과의 동선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의미를 느끼게끔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포치를 형성하였던 게 대표적인 포인트 중의 하나로 꼽아본다.



지붕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배치도

광양 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2026년까지 105억 투입... 노후 도로 정비, 공원조성 등



출처 : 광양군청 제공

국토부가 추진한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2015년 순천 일반산단, 2017년 여수 오천일반산단, 2020년 여수 국가산단 선정에 이어 네 번째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에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자 편의지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105억원 중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2024년까지 사업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부터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고흥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국토부 70억원 확보... 2024년 준공을 목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전남 고흥군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유치해 사업비 70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로 인한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창호단열, 냉·난방 설비 등을 보수해 에너지성능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토부 시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경로당 644개소 건물 중에서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 33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며, 33개소 공공건축물(경로당) 모두 국토부로부터 최종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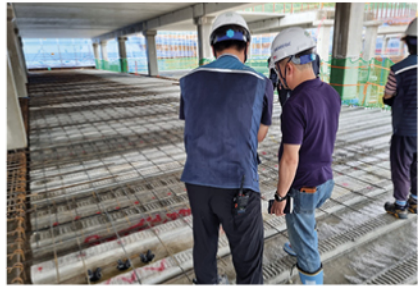
고흥군은 공모과정에서 경로당의 열악한 시설 상황을 설득하고 꼼꼼한 현지답사, 실질적 시설관리의 증명 등을 통해 대상 경로당을 33개소로 확대-건의 함으로써 확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업 유치로 지역 33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비 70여억원을 투입해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교체부터 창문 단열, 도배, 장판 등 경로당 건물구조를 제외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

건축계획과 시공, 구조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 점검단 구성해 점검



출처 : 전라남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

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나섰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한다. 전국에서 드물게 기초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한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건축안전 자문단과 함께 품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도 하는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빠짐없이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시공상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부실공사 근원을 뿌리 뽑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공사 중인 35개 단지에 대해 931건을 개선했다. 추가로 공동주택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22개 단지에 대해 295건을 개선 조치하는 등 총 57개 단지 1천226건을 시정했다.

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동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동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건물 소유주 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 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건축사회, 2023년 상반기 전남권 공사감리교육 실시

지난 8월 31일 무안(서부)과 9월 5일 순천(동부)... 감리교육 강연 열어

전남건축사회는 8월 31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공사감리교육을 진행했다.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건축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건축



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 조병섭 건축사(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가 교육하였다. 또한 동부권은 9월 5일 동일한 주제로 전남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하였다.

국도교통부에서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건축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2023년 전남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8월 25일 보성 다비치콘도 2층 제암홀 진행...



2023년 전남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가 8월 25일 금요일에 보성 다비치콘도 2층 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신입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전남건축사회 회장(한형민 회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임원소개 및

신규회원 소개를 진행하고 협회 현황 및 업무수행 관련 안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박상복 건축사 / 이수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북산길12번길 15 2층
- 박우만 건축사 / (주)사우스포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35 2층
- 김새롬 건축사 / 로우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d-3동 405호
- 이동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탐디자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18-10 1층
- 신정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더스 전남 목포시 정의로 22 402호
- 박명선 건축사 / 남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왕건길 52
- 최승호 건축사 / 최 건축사사무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68
- 심우석 건축사 / 우석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B동 201호
- 허지민 건축사 / 허지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9길 11 2층
- 김현중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샵(♯)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E-1동 306호
- 장성현 건축사 / 지오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99-4
- 윤석귀 건축사 / 룰 건축사사무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60
- 김영일 건축사 / 유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95
- 고수진 건축사 / 오브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403호
- 정일경 건축사 / 예백건축사사무소 (주) 전남 나주시 시청길 21-7 403호
- 황보설 건축사 / 해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39 202동 110호
- 노광수 건축사 / 선담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9 1층

•재입회

- 김창석 건축사 / 태승 건축사사무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8 2층
- 김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시원 전남 나주시 시청길 21-7 301호
- 위현철 건축사 / 극동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9 2층
- 장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장건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77-1 2층
- 조일상 건축사 / 조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8-6 102호
- 장재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세울터 전남 나주시 시청길 19
- 조용조 건축사 / 조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6
- 문정영 건축사 / (주)문앤창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4 1층
- 염경열 건축사 / 나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6 2층
- 김승범 건축사 / 명보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105
- 서지훈 건축사 / 금조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1-7 205호
- 구 협 건축사 / (유)성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108 2층
- 최봉휴 건축사 / 성우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1
- 정영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46-1
- 주형신 건축사 / (주)원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808-7
- 조창대 건축사 / 케이제이 건축사사무소(유)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길 15
- 이장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수건축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동길1 103
- 문성현 건축사 / 창의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길 15

•변경(소재지)

- 유성우 건축사 / 유성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69-38 5층
- 정택훈 건축사 / 정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39-3



까사 디 리갈로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5길 5-4, 2층
Tel. 063-276-0020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거리 1120 / 대지면적 : 487.30㎡ / 건축면적 : 235.06㎡ / 연면적 : 293.48㎡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고벽돌치장쌓기, 탄브라운화강석, 징크지붕

전주시, 도시의 미래 위한 건물 탄소중립 전략 모색

도시의 미래를 위한 건물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3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회 등 진행

전주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댄다.

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시에너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공공·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건물 부문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조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공공의 선도적인 정책, 시민 참여 방법 등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컨퍼런스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건물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과 해법,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녹색건축 기술 총 3개의 세션, 12개의 발표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발표뿐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의 에너지와 탄소 절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공동사업자 방식 청년·근로자주택 추진

2026년 하반기 입주 목표로 국비 47억 등 총 168억 투입... 공공임대주택 70호 건립

전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팔복동 일원에 창업지원주택 24호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 46호 등 총 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7억 원 등 총 168억 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공동사업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시공하면 시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맡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팔복동 일원의 부지 약 5,000㎡(1,500평)를 확보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 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공모 과정에서 설계내용과 시공금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동사업자방식은 그동안 LH와 지방공사에서 추진해 오던 방식으로, 전주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 시는 기존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

제점 등을 찾아 보완하는 등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 등을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건축물로 건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전주국가산업단지과 첨단산업단지, 향후 조성될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팔복동 신복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시너지를 내 인구유입 효과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어린이 집 그리기, 건축 백일장 대회

9월 16일 대회 개최... 전라북도청 1층 로비에서



전라북도와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박진만 / 전북건축사회 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와 건축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6일 전라북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북도 내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참가신청 접수는 따로 없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대회 경연 방법은 각자 가져온 그림재료(크레파스, 물감, 화판, 돗자리 등)를 이용하여 배부되는 도화지에 '전기가 부족한 우리 집은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그리면 된다.

전라북도,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정읍 장명지구 45억원, 남원 천거지구 43억원... 국비 88억원 확보

전북도는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동네살리기(부안), 지역특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에서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남편이 선물하는 전원주택 Casa De Regalo(까사 디 리갈로)는 오랜 삶을 함께한 부부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들까지 10명의 가족이 즐기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완주군 구이면 호수마을은 동쪽의 넓은 호수와 서쪽의 깊고 높은 산, 남쪽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가진 최고의 전원환경에서 시작되었다.

건축주와의 만남부터 대지, 현황분석, 상호의견 및 Program 과정에서의 이해와 원만한 소통은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되어, 즐거움과 함께 작품은 시작되었다.

모악호수마을의 한가운데 3면의 도로에 인접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모서리가 타원형인 형태로 동서남북 모든 면이 수려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막다른 도로 끝의 회차 공간 모서리 대지 북측에 주출입구와 주차장을 배치하고 진입동선부터 방사형으로 동측 호수전망의 취미실과 동남측 정원광장으로 개방된 거실, 마을의 조경정원을 바라보는 남측의 식당과 안방, 모악산의 원경이 아름다운 서쪽 테라스까지 각 방향마다 빼어난 경관계획과 동선에 중점을 두었다. 2층은 가족실과 자녀들의 침실 및 외부휴게공간을 각 방향에 따라 세 군데로 계획하여, 호수와 근경, 원경이 모두 전망될 수 있도록 최고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최다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이라는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주거지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량마을”이라는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하여 70년대 수해 이주민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건축사회, 건축올림피아드 개최

전북의 미래의 건축인재 발굴·육성을 목표로...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전북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문화발전 및 미래의 건축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오는 9월 16일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전라북도 내 중·고등학생이며 사전 접수 후 당일 제시된 주제를 해석하여 스케치 후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회 강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 순창군, 2023 도시재생대학 운영

8월 30일 시작으로... 10회 교육 실시 예정



출처 :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지난 30일에 순창군립도서관에서 ‘2023 순창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열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주민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시재생대학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0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일반반과 심화반을 나누어 교육할 예정으로 일반반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접목 방향, 공모사업 추진 방법, 도시재생 사례탐방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심화반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수료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박영옥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서암3길 16
- 채우병 건축사 / 혜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55
- 이예슬 건축사 / CSA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검다메2길 17-4

•재입회

- 김성용 건축사 / 자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2
- 김명열 건축사 / 도시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51-1

•결혼

- 이행욱 건축사 / 새롬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3년 09월 02일(토)
- 정철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건축 / 딸 결혼 - 2023년 09월 02일(토)

•부고

- 서봉욱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배우자상 - 2023년 08월 11일(금)
- 장영길 건축사 / 기성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3년 08월 24일(목)
- 박 훈 건축사 / (주)제이엠덴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3년 08월 26일(토)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작품 모집 안내

- 출품자격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 출 품 료 : 없음
- 모집기간 : 상시
- 작품구분 : 준공 작품
- 소개지면 : 광주·전남·전북 지역 지면 회원작품 소개코너
- 제출자료 : 작품사진 JPG 파일 및 치수선 없는 도면 PDF, 설계개요 및 개념 한글파일, PDF 등
- 제출방법 : 광주건축사회 이메일(gjkira@empas.com)
- 문 의 : 건축문화사랑 신문 담당자 Tel. 062-521-0026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지역의 건축흐름과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제2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가 함께 진행되는데 온라인 전시는 건축단체연합회(<https://gfauc.gjfika.org/>)에 접속하면 관람할 수 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는 이 지역 건축사, 건축관련 교수 등 건축인들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건축도시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는 행사로 '제2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회원 출판작품전', '6개 시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초등학교 고학년 최고상에 최서영, 김민지 학생 수상



제20회 그림그리기 사생대회가 8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주제는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집"으로 68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수상작은 12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건축단체연합회(<https://gfauc.gjfika.org/>)에 온라인 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최고상은 광주시교육감상, 유치부 최고상은 연합회장상을 수여받는다. 이번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최고상 초등학교 고학년 부문으로는 최서영, 김민지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에는 김지유, 김민서 학생이 수상하였다. 유치부 최고상으로는 신서원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최고상은 광주시교육감상, 유치부 최고상은 연합회장상을 수여받는다. 이번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최고상 초등학교 고학년 부문으로는 최서영, 김민지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에는 김지유, 김민서 학생이 수상하였다. 유치부 최고상으로는 신서원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학교 1기 개강

8월 23일 시작으로... 유명 강사진과 5회차 교육 실시 예정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8월 23일 6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제1기 경관학교'를 개강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경관학교는 도시경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강좌로, 주민이 기획자로 참여해 마을 경관을 기획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동구만의 도시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도시경관의 이해, 가로경관 우수사례 공유,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도시경관 교수·전문가 등 유명 강사진과 실속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회차 교육은 오는 23일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사회적 자본으로서 도시경관을 말한다'를 주제로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나머지 2~5회차 교육은 사전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경관학교는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생들은 과정 수료 후 경관참여단을 구성해 동구만의 경관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배 바둑대회

9월 9일 문성고등학교에서 개최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배 바둑대회에는 김병내 남구청장, 심상봉 남구바둑협회장,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 장계상 광주시바둑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바둑대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남구바둑협회가 주관, 광주광역시 건축사회가 후원하는 이번 바둑대회는 클럽대항전, 고학년부, 중학년부, 저학년부, 여학생부, 꿈나무부, 꿈나무단체 등 6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심상봉 광주남구바둑협회장은 "바둑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매력적인 두뇌 스포츠이나 오늘은 승패를 떠나 즐거운 마음으로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대회가 바둑 문화 활성화와 바둑인 저변 확대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reen Smart MAXU 사옥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402번길 37, 2-3층
Tel. 062-384-9792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 대지면적 : 314㎡ / 건축면적 : 148.10㎡ / 연면적 : 468.76㎡ / 규모 : 지상4층 / 주요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물높이 : 17.30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건축사진 : 소앤재 스튜디오

조선대학교 건축학과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생작품전 열어

9월 7일 조선대, 12일 광주대 개최... 정인채 회장, 박재홍 부회장 참석



조선대학교 건축학과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가 학생작품전을 9월에 개최했다. 먼저 9월 7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는 제1공학관 11층 홀에서 제77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 전시를 진행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도 9월 12일 호심관에서 제35회 건축작품전을 개최하고 졸업작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박재홍 부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시상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을 하였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 개최

11월 7일까지... 50여개국 디자이너 777명·189개 기업 참여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본전시, 특별전 및 연계·기념 전시, 국제학술행사 디자인비즈니스, 디자인 체험·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이 밖에 국제포스터디자인초대전(비엔날레전시관), 생태문화 테마전(시립미술관), 전·현직 총감독 추천 디자인전(양림동) 등 특별전과 영 디자이너전(디자인진흥원), 아날로그의 추억전 등 다양한 연계기념전이 광주 시내 곳곳에 마련된다.

국내외 저명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윤곽을 드러냈다. 6개국 40여명의 세계적인 석학과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 8일부터 3일간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막 심포지엄, 디자인 포럼, 디자인 토크로 진행된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메타버스로 즐기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해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워크숍, 글로벌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디자인 전시는 물론 온 가족이 즐기는 디자인비엔날레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광주 회원동성

•입회

- 노석준 건축사 / (주)이룸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백양로 7, 5층
- 김성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SIZE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88, 1216호
- 박경아 건축사 / 이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88번길 9, 1층 102호
- 김철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흥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6층 604호
- 이수용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반 / 광주 동구 남문로634번길 1-30, 3층
- 김동하 건축사 / 아뜰리에38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양림로 60-1, 4층
- 김민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바른건축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A동 8층 811호
- 장진배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광주 서구 운천로 103번길 4, 2층, 3층
- 길혜연 건축사 / 에이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중앙로 150-16, 3층

•재입회

- 오화중 건축사 / (유)지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317, 4층

•전입

- 홍승신 건축사 / 혼디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사암로31번길 6-5

•결혼

- 정원석 건축사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9월 02일(토)
- 안 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 / 안길전 회원의 장남 결혼 - 09월 09일(토)

•부고

- 정원비 건축사 / 제희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3년 08월 20일(일)
- 강성진 건축사 / 무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3년 08월 23일(수)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 모친상 - 2023년 09월 08일(금)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전) 광주광역시 시의회 자문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본 대지는 낙후된 하사관 주택 부지로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린 스마트 맥스유 사옥을 지어 송암공원과 연계되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 상부를 둘러싼 비대칭의 박공지붕은 그린 스마트 사옥의 'G'를 형상화하였고 아파트로 즐비한 동네의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며, 한편으로 시설 이용자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포용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면과 측면에 넓은 창과 커튼월을 적용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내부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내외부를 연결하는 다양한 발코니는 업무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배지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제2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작 '서빛마루'

설계자 :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 1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40,440㎡ / 건축면적 : 2,084.38㎡ / 연면적 : 6,770.79㎡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공연장 및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복합문화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비주거 부문 최우수작 '회색커'

설계자 : 조경빈 건축사 /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하광수 대표 / 우리마을에이엔씨(주)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 대지면적 : 620.00㎡ / 건축면적 : 357.65㎡ / 연면적 : 1,486.09㎡
 건폐율 : 57.69% / 용적률 : 219.68%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 **시상목적** :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시상하여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건축저변 확대와 광주지역 우수 건축 장려를 통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시책을 제고하기 위함.
-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주거 부문 우수작 '제고공일'

설계자 :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이현철 대표 / 디엠산업개발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완길 103-19 / 대지면적 : 491.00㎡ / 건축면적 : 97.88㎡ / 연면적 : 293.64㎡
 건폐율 : 19.94% / 용적률 : 59.80%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국토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심의를 통해 설계도서 검토·구조체 품질조사 매뉴얼 마련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점검 매뉴얼은 준공 후 단지와 시공 중인 단지를 나눠 각각 제작했으며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절차별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또 구조체 품질 조사를 통해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현장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결과 무량판 구조체에 대한 전단 보강근 배근이 필요없고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준공된 단지의 경우 현장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수행 보고서가 있다면 조사를 생략하고 이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빈집 업사이클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철거·리모델링 통한 임대주택·생활기반시설 공급예정



2023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서울시가 SH공사와 함께 공사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8월 28일(월)부터 9월 24일(일)까지 '서울시 빈집 업사이클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 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전문가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아이디어 부문)하거나 공원·쉼터 등의 생활기반시설 등 구체적인 건축물을 조성한 디자인 작품 제출(디자인 부문)하면 된다.

개인(1인) 또는 2인 이하 팀 중 1개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부문별 작품 1점까지 제출 가능하다.

참가자는 SH공사가 소유·관리 중인 85개 빈집부지 중 1개를 선택해 아이디어와 디자인 부문(안)을 A1 크기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활용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 등 4개의 기준을 중점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책 소개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요즘음 건축

국형걸 저 / 효형출판 / 2022. 11. 30.

이 책은 건축가 국형걸의 저서로 한 책으로, “어렵고 난해한 건축이 아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는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벼워져야 하는 건축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건축가들은 캐드로 도면을 그리고 3D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으로 건축물을 세워본다. 기술은 진보하고, 건축가들은 그에 맞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의 편리함을 통해 예전의 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이 막히게 되고, 같은 프로그램 소스를 통해 동일하게 찍어내는 도면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형걸 건축가는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건축은 사회 변화를 읽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할 때 시대를 앞설 수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건축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과 한계를 뛰어넘자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서 먼 곳이 아닌, 주변 어디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초반부의 들어가는 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문장은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이다. 이는 국형걸 건축가의 대학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때부터 건축이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책을 열고 이 문장을 보았을 때, 나 또한 갑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건축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던 건축과, 지금 배우고 있는 건축은 과연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을까? 가벼운 질문이면서도 무거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깊게 바라보기”이다. 나 스스로가 재료와 기술, 형태 등에 대해 건축의 기본적인 것을 깊게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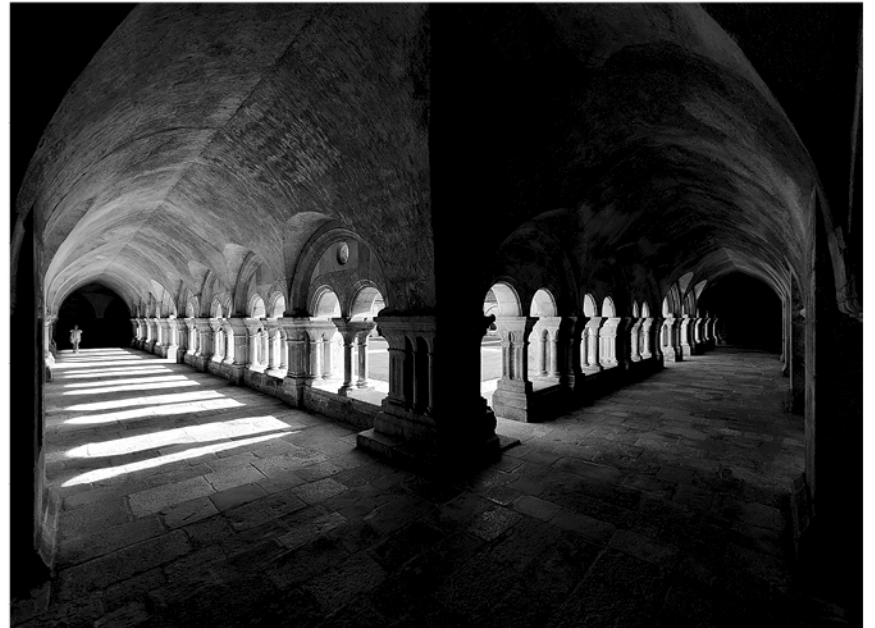
2장은 “넓게 생각하기”이다. 단순한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를 그리고, 변화해 가는 건축에 대해 한 단계 앞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단순한 건축을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주거 생활, 시대적 변화 등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3장은 “새로움을 찾아”이다. 3장은 건축가 국형걸이 진행해 온 프로젝트들을 담고 있으며, 그가 건축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던 과정을 담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재료를 통해서 이제까지 접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등 그의 실험적인 도전은 많은 독창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4장은 “조화로우움을 찾아”이다. 기존의 습관처럼 꾸며진 전형적인 공간, 버려진 공간, 오래된 공간 등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특징들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생각이 가벼우면서도 무겁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에게 있어 건축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퐁트네 수도원의 회랑

프랑스 몽바흐 / 2023년 8월 11일

한 편의 시

청포도 사랑

낮 마당에 옹기종기
곰빛 햇살을 머금고
말랑게 익어가는 청포도

담장에 앉은 벌 나비도
침을 흘리며 날개를 떼다

하루의 뜨거운 햇살
산 너머로 기울어질 때
반짝이는 넝쿨 사이로
서양은 스러지고

낮 동안 달구진 여름 햇살
청포도 향기로 씻겨내어
가을을 맞을 준비한다

아침 햇살이 익어갈 때
알알이 사랑도 무르익어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동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삼성 자이언츠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대지면적 :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대지면적 :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처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원가절감

내부기공을
최소한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설비/시공의
기술인증서보유
(15년유망기업연방)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 · 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